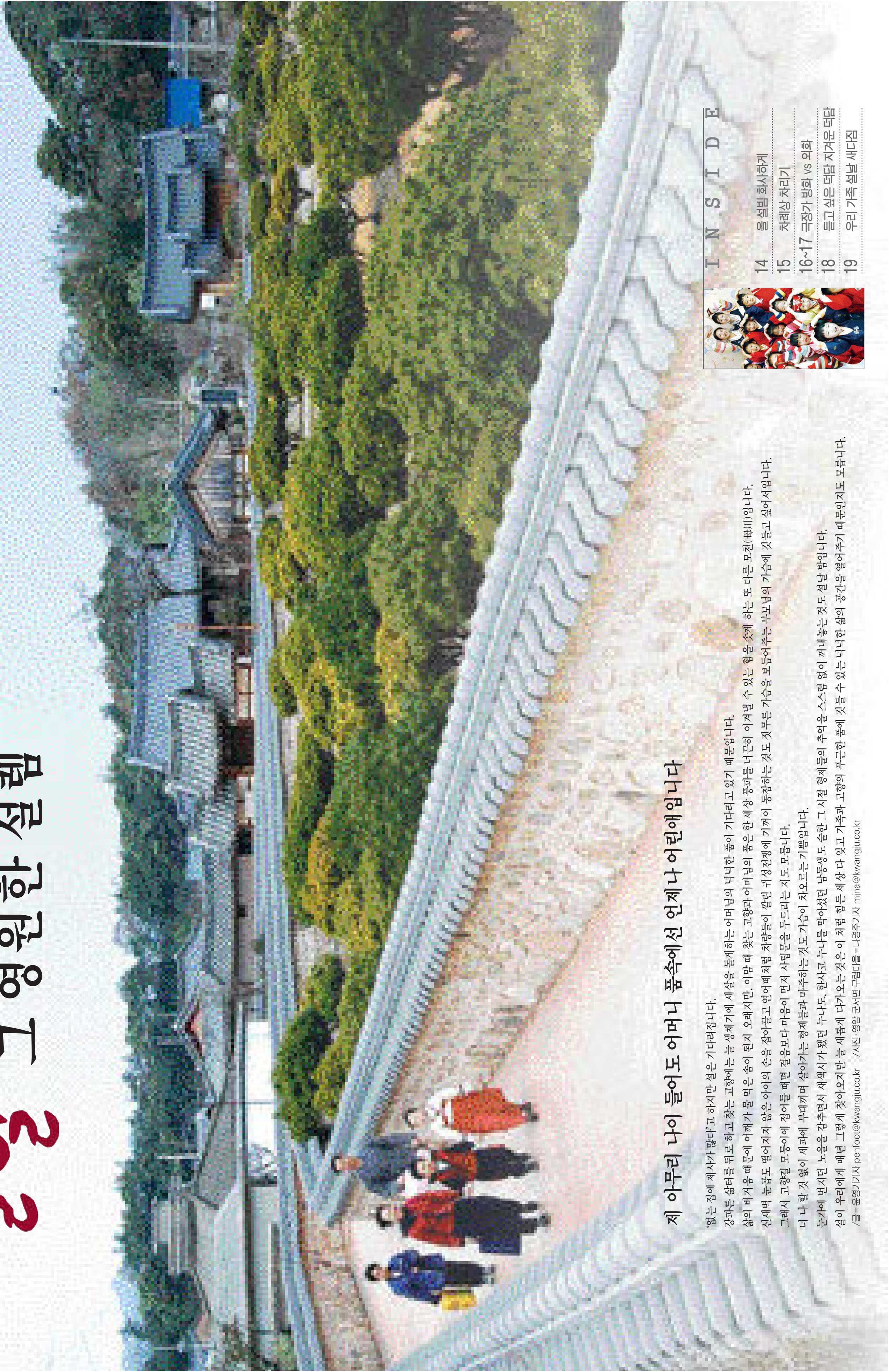


광주일보와 함께

선날 그 영원한 선렘



제 아무리 나이 들어도 어머니 품속에선 언제나 어린애입니다

'없는 집에 제사가 많다'고 하지만, 설은 기다려집니다.
 강파른 샅터를 뒤로 하고 찾은 고향에는 늘 생체기에 새살을 뚫게하는 어머니의 넉넉한 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버거움 때문에 어깨가 풀 먹은 숨이 된지 오래지만, 이맘 때 찾은 고향과 어머니의 품은 한 세상 풍파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또 다른 모친(母川)입니다.
 신재벽 눈곱도 떨어지지 않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연어떼처럼 차랑들이 깔린 귀성전쟁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도 짓무른 가슴을 보듬어주는 부모님의 가슴에 깃들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고향길 모퉁이에 접어들 때면 길을보다 마음이 먼저 사림문을 두드리는 지도 모릅니다.
 더 나 할 것 없이 세파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형제들과 마주하는 것도 가슴이 차오르는 기쁨입니다.
 눈가에 번지던 노을을 감추면서 새색시가 됐던 누나도, 한사코 누나를 막아섰던 남동생도 슬한 그 시절 형제들의 추억을 스스럼 없이 꺼내 놓는 것도 설날 밤입니다.
 설이 우리에게 매년 그렇게 찾아오지만, 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이처럼 힘든 세상 다 잊고 가족과 고향의 푸근한 품에 깃들 수 있는 넉넉한 삶의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글=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영남 공서면 구림마을 =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I N S I D E

- 14 을설빔 화사하게
- 15 차례상 차리기
- 16~17 극장가 빙화 vs 외화
- 18 듣고 싶은 덕담 지겨운 덕담
- 19 우리 가족 설날 새디즈